

포천사회 知識人 ④

대진대학교 박수경 교수

“지역특성 반영한 사회복지 모형 개발해야”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필요

“포천·연천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다. 이 지역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컨텐츠가 명확하게 없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이 도시위주의 모델이기 때문에 접근이 잘 안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모형을 개발하는데 연구과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음주와 정신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다고 한다. 또 국제 결혼이민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박 교수는 포천사회에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의견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욕구도 없고 답변도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의견이 소집 단별로 결집해서 나와 주었으면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 교수는 “스스로 충만해져 복지서비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기를 돌보고 채우고 노력하라”고 주문한다. 그동안 대진대학교에서 배출한 사회복지사가 현장활동에 나서고 있는 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추진하는 행사로는 장애 체험행사가 있다. 학과수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행사는 성공회 나눔의 집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교수는 앞으로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모형 및 프로그램을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산재 장애인 연구다.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모형 연구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포천신문이 보도해야 할 내용에 대해 박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분들을 자주 소개해 주기를 바란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시리트로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일반적인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복지 모델을 연구, 발표하여 포천지역사회 사회복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박 교수가 그동안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명과 저서는 다음과 같다.

▶조직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산재발생에 미치는 영향(대진대)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개선방안연구(노동부) ▶산재보험 중복급여 개선 방안연구(노동부) ▶도시벽지 지역의 통합지역사회복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삶의질 기획단)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증대를 위한 재활상담원 역할 모형에 관한 연구(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 분석 및 효율적 추진방안(한국노동연구원)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따른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저소득층 노인 생활실태와 개입방안(연천군) ▶공공복지 투자방안(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재활사업 중장기운영방안(노동부) ▶사회적응 프로그램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근로복지공단)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 복지실천 및 정책방안(대진대) ▶윈터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개발(서울시) ▶장애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통합(아산재단)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대진대) ▶혼란스러운 식이(disordered eating)행동과 보호요인-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여자 청소년을 중심으로-(한국학술진흥재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를 위한 직업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2001, 한국노동연구원) ▶사회복지문제와 요점정리(2001, 유중출판사) ▶여성복지론(2001, 대학출판사) ▶시각장애인 실태조사(200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의 사회복지(2002, 유중출판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체계 합리화 방안(2002, 강남대학교) ▶간접고용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1, 비정규센터) ▶군정연구보고서(2002, 연천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2003,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2004, 한국노동연구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는 스스로 충만해진 후 봉사해야 한다”

집중인터뷰 포천축협장 양기원

“私心 버리면 지역통합 가능”

40대와 50대 지역별 협의체 구성 협의 필요



지방자치권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는 정책결정은 물론 오피니언 리더들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포천시가 인근 지역에 비해 다소 발전속도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갈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도입된 이후에는 시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유도해야 할 오피니언 리더들이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기편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쫓 세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올 연말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보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포천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불신에 있다. 이들간의 화합과 충실한 자기 역할이아발로 지역발전은 물론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본지는 포천지역 유력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천사회의 특징은

포천은 옛날부터 토박이들이 모든 면에서 독재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해야하고 하려고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명의 국회의원 이 수십년 동안 득세해 왔고, 주민들도 그들을 전국 최고 득표율로 지지해 왔다.

포천지역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편가르기가 만연해 왔다는 점이다.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 했지만 포천 출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논리였다. 그렇게 되면 타지역 출신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 혹은 자기 사업을 위해 포천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지역 출신자들에게 줄을 대고 있다.

▶포천사람들의 관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포천지역에 관심점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선배들의 관심점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훌륭한 일꾼은 특출한 인물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위에서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지역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배와 지위 고하를 떠나 능력 있는 사람을 적극 지지해 줘야한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포천 출신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 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특정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는 경우가 많다. 주위사람이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포천지역 사회의 갈등 원인은

포천지역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지만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과거 포천사회 리더그들은 편가르기에 치중했다. 같은 포천지역 출신이면서도 포

천출신 혹은 기타 다른 지역 출신 등으로 분류하고 특권의식을 가졌었다. 포천지역내 갈등은 오히려 영호남 갈등보다 심했다.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

포천시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만 외부 출신은 많지 않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포천 출신 혹은 외지출신을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같은 원인은 배타적인 의식 때문이다. 각종 단체가 발전해야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주민들을 갈라놓고 패를 만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인해 골이 फै인 경우가 있다. 나이가 40대와 50대인 사람들이 초등학교 동문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시절 순수했던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못하다. 불과 가을에 보면 동문회 한다는 프랭카드가 여기저기 나부긴다. 동문간의 단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勢과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0대와 50대가 중간 고려역할을 해 줘야한다. 또한 지역별 혹은 학교출신별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교류가 필요하다. 포천이든 송우리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포천지역 현안문제는

포천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교통문제다. 서울시 면적의 1.3배라고 하지만 평야지대는 없고 중간 산악지대가 대부분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43번 국도나 다른 도로사정이 좋아져야 한다.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들은 도로문제를 표와 연결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43번 국도는 처음 2차선이었는데 4차선으로 포장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실질적으로 교통문제는 최근에서야 대비한다고 하고 있다. 교통문제를 말하는데 택지개발과 연결시키고 있다. 포천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농축산에 대해서는 도의시하는 측면이 있다. 포천지역은 1/4이 농촌지역이다. 도농복합시이면서도 일부 축산업은 축산분뇨처리 등의 문제가 있다. 농축산업에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축산인들은 한미FTA로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정책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출직들은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서로 간에 자기 위치와 직책을 떠나 조금씩 양보하고 이야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리더가 있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포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로 눈치보고 주위 사람눈총만 본다. 사실 포천출신이 아닌 사람이 오히려 선출직을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면 시민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심을 버리면 된다.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한번만 하고 안한다고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과 지역사회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 편법만 생각하게 된다. 지역별 원로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또 시민들의 합의과정을 도출하고 설득하면 안될 일이다. 기본으로 생각해야 할 사항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임기 동안만이라도 사심이 없으면 지역통합은 이루어진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집안의 모든 경조사 대행서비스

“ 상조 회사도 명품이 있습니다.”

돌, 결혼, 칠순, 장례토탈

상조회사의 명품! 한라상조(주)

내부모 내형제처럼 언제나 고객님의 가까이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HANLA 한라상조(주) 대표전화 1588-4331 www.hanlasangjo.com

◆경기북본부◆

- 포천지사 임상빈 011-266-2682
•포천지점 김원하 010-9459-6038
•연천지점 김동현 011-9260-6113
•청평지점 김명수 011-9632-1958
•동두천지점 이창식 018-212-5018

- 김민정 011-9150-9454
•이승덕 018-212-5098
•이상열 011-716-0246

사원수 시모집 포천장례예식장 한라상조지점